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4월혁명과 4.19세대

조 회 환

(회원, 외대 교수)

1960년 4월 19일은 나에게 더없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준 계기가 되었고 또 장래의 노선을 밝혀주기도 했던 값진 날이다. 반독재투쟁의 함성이 서울을 뒤덮던 그 현장에 나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생일대의 자랑거리였으며 또 그때의 민심, 즉 천심이 자주·민주·통일에 있었음을 알고 나 또한 그 길로 매진하자는 깨달음과 확신이 섰기에 4.19는 값진 역사체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위대한 참여, 위대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4.19의거, 아니 4월혁명에 대하여 충분히 선양할 스스로의 준비나 공부도 덜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전개된 시대환경도 4.19정신과 맞지 않아 4.19 그날이 오면 혼자 묵념을 올리거나 마음 속으로 기리기도 하고 대학에 재직하면서부터는 학생들에게 간단히 4.19를 설명해 주는 정도로 지내왔으니 내심 부끄러운 느낌 그지없다. 내 나름의 전공과 그에 따른 생업에 몰두하라 장기간에 걸친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의 함성 속에서 속 태우랴...

어언 38년이 되었다. 따라서 기억에서 사라졌거나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성싶어 적어 걱정되지만 보배로 간직해 온 과거사를 모처럼 술회하게 되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다만 장래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고 그때를 회고하게 되면 더욱 잘 정리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추억을 더듬어 보고, 곁하여 시대와 관련된 견해를 첨언해 보겠다.

4.19의거가 있기까지 몇 가지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전야제 격인 4.18에는 고려대학생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 정치깡패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그보다 약 1개월 전인 3.15에는 마산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데모가 있었다. 당시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네 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민의 원성이 대단했으며 마산의거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59년 7월 31일에는 당시 제3당이면서

진보노선을 표방하고 급성장 중이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는 비극이 있기도 했고, 또 그보다 먼저인 58년 12월에는 집권 자유당 의원만으로 국회에서 보안법을 통과시켜 야당 탄압을 용이하게 했기에 야당의원들의 데모와 농성이 빈발하기도 하였다. 그 이전 12년간에 있었던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의 실상에 대한 서술은 여기서 생략하겠다.

연속적인 정치적 불상사는 가장 정의감에 투철한 대학생들의 격분을 야기시켰고 교수님들 또한 정중동의 상태에서 울분을 삭이고 있던 중이었다. 드디어 4.18 고대생 데모가 폭행당하자 분노하던 나는 4.19 그날 아침 일찍 내가 다니던 외국어대학에 나가 닥치는 대로 몇몇 학생을 만나 데모를 권고했으나 아직 등교생 수도 많지 않고 또 안면은 있었지만 타 학과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당장은 여의치 못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뒤따라오라는 말만 남기고 나 혼자서 광화문으로 나갔다. 그때 이미 연세대, 중앙대, 동국대생들이 시내에 진출해 있었기에 나는 세종로에서 잠시 응원을 하다가 내가 다니는 외대가 여기에서 빠진다면 말이 아니다 싶어 다시 적극적으로 동원할 생각으로 급히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 쪽으로 가던 도중 송인동에서 드디어 외대생들이 새카맣게 진출중임을 보고 하차하여 선두에 섰었다.

나는 남보다 대학입학이 늦어 비교적 철이 든 나이였고, 또 그 당시 중국어과 2학년 대표였기에 자연스럽게 중국어과 학생들의 선두에 서게 됐다. 그러나 중국어과 학생들이 외대생들의 선두에 섰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전체 외대생들의 선두에 서게 되었으며, 기억이 확실치는 않으나 남해 태생 하영주, 서울 태생 이종덕 등과 최선두에서 “대통령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쳐댔다. 종로 네거리에 이르자 사람으로 길이 막혀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어 광고 쪽으로 좌회전하여 을지로로 돌아 다시 시청 앞에서 우회전하여 경무대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후미에는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종로 5가에서부터 뒤따르고 있었다. 경무대(현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그 길도 초만원이어서 진출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그쪽에서는 총소리가 요란했고 또 이때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다. 부득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종로 2가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시위를 하던 도중, 해질 무렵이 되면서 계엄군들의 총소리가 요란하였다. 어둡기 전에 각자 돌아가야 할 처지이기도 해서 총알을 피하면서 자취방인 회기동으로 돌아가는데, 골목길로 달리다 보니 어떻게 성균관대학교와 그 뒷산 기슭을 헤매면서 초저녁에야 숙소에도착했다. 그날 서울 시내 거리는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인산인해였고 모든 고층 건물들의 창문마다에서는 직원들이 내려다보면서 격려의 박수를 쳤고 일반시민들은 학생의 대열로 끼어들거나 아니면 길가에서 격려의 박수와 함성을 지르는, 그야말

로 온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었던 용광로의 양상이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송요찬(宋堯讚) 중장이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총기발사는 주로 위협사격이었고 최대한 인명을 중시하는 덕장이었다. 계엄하에서 며칠간 평온을 되찾았으나 그 사이 집권세력측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4월 25일 교수님들의 데모가 촉발제가 되어 나는 4월 26일 다시 시내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여서 걸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안암동을 지나면서는 벌써 당시 서울사대 동남코너에 있던 안암과출소가 파괴되어 있었으며 도처의 과출소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거나 파괴되고 있었다. 사실 내 기억으로 대학생들은 파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시 밀바닥 생활을 하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로 파괴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음을 볼 때 그 당시 경찰과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증오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그 날 정오쯤 종로 5가를 지날 때 동숭동 방향으로부터 서울대학생들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학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함안 친구 조(趙) 모군은 지프차에 올라타고 달리면서 피묻은 수건인지 와이셔츠인지를 들고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종로 4가를 지나던 때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을 들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령의 떨리는 목소리로 “나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등의 육성방송을 하였다. 그 날도 군중의 틈에 끼어 광화문까지 걸으면서 함성을 지르다가 또 걸어서 회기동 집으로 밤에야 돌아왔었다.

수일 후 학교가 정상화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런데 5월 중순 어느 날 학우인 채(蔡) 모군이 신문광고에서 내 이름을 보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로 기억되는 신문의 광고를 찾아보니 <전국 대학생 민주수호·공명선거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명단이었는데 나는 조직부 차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물론 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위원장(1명, 고려대 상경대 4학년 박 모씨), 부위원장(5명, 서울대·연대·이대·숙대, 또 어느 종합대학 학생 각 1명), 총무(1명), 그리고 각종 부서가 있었는데 대개 3,4학년이었고 나는 당시 2학년이었다. 그 광고를 본 뒤에야 종로 5가 동남코너에 있던 5층 건물로 찾아가 봉사에 임했다. 그런데 당시 총무는 서울법대 4년 김 모씨(현 강원대 교수)였는데 고학년이고 또 고시준비 등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위원장단에서는 나더러 총무를 맡으라 해서 막중한 내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한국교수협회(회장 조운제 성균관대 교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자매단체 격이어서 연세대 정석해 교수님 등 많은 교수님이 조언차 드나들었으며 당시 경

찰력의 무력화로 학생조직이 정치와 질서유지의 중심에 서게 되어 허정 과도정부내 각 수반, 민주당 최고위원 박순천 여사 등과 관계가 밀접했으며 국방부에서는 공명 선거 캠페인을 위한 차량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그 해 7월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8월중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여 내각책임제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때 우리는 학생조직의 해산을 선언하고 각자 학교로 돌아갔으나 상당수는 학생조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따로따로 각종 명칭의 학생조직을 창설하였다. 드디어 세대교체를 하자느니 남북협상을 하겠다느니 각종 주장들이 난무하였으며 진보를 표방한 정당들도 여러 개가 생겨 그 해 가을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각종 군중집회가 자주 있었다. 나도 학생조직을 하나쯤 꾸리자는 유혹도 받았으나 본분을 지키자고 주장하였다. 즉 불의에 항거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본분이 학생이니만큼 학교로 돌아가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이듬해(61년) 봄에도 각종 주장과 군중집회가 끊이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때 각종 학생조직을 이끌던 지도급 학생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 나는 조용히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행은 면한 셈이다.

5.16 군사정권의 3·4공(61~79)과 5공(80~87), 6공(88~92)을 거치는 동안 4.19 세대의 대다수는 평범한 생활인이 되어 풍파가 없었으나 일부 정치지향적인 학생들은 꺾박과 회유를 받으면서 제 목소리를 죽이거나 차츰 이당 저당으로 분산되었다. 나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4.19 사자후를 지르던 그 해를 끝으로 분수껏 내 갈 길을 가게 되었다. 3공 시절 제대 시에는 비록 육군 사병이었지만 군에서의 번역능력과 신임을 바탕으로 정부의 모 권부에 입사를 권유받았다. 부대의 성격상 관련이 있어 부대장 이하 많은 영관급 참모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모 처장(대령)께서 권유를 하였으나 정서상 맞지 않아 들어가지 않으려고 사양하고 한동안 구직차 헤매다가 회사 또는 다른 몇 개의 직장으로 전전하게 되었다. 다만 유학을 마치고 박사가 되어서는 통일원의 고급공무원이 되어 2년 반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였는데, 그 사이 78년 가을에는 청와대의 김 모 비서실장께서 청와대로 오라고 하셨다. 나는 군사정부의 핵심 권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정권 말기현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또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다 싶어 사양하였다. 그분은 설득이 잘 안 통함을 알고 나더러 “생활이 안될 테니 오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공무원 생활 어딘들 대단하겠습니까? 또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끝내 거절하였다. 5공 때부터 나는 대학에 있었다. 아마 82년이던가, 그 해 청와대의 이 모 비서실장께서 나를 네 번씩이나 호출하셨다. 세 번까지는 간단한 세상사나 중국관계의 이야

기를 나누었으나 네 번째는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만나던 중 끝내 그 말씀을 듣고 또 거절하였다. 5공 정권이라면 정서적으로 싫을 뿐 아니라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주는 (殺鷄儆猴) 작전’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데모를 잠재우기 위해 광주를 닭으로 삼고자 광주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뒤 보란 듯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광주학살을 단고 잡은 정권이어서 더욱 싫었다. 그래서 “실장님, 저는 솔직히 선생질을 빼놓고는 아무 데도 써먹을 수 없는 샌님입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계속 선생질이나 하겠습니다” 고 짐짓 못난 시늉을 하면서 사양하였다. 하찮은 인생이지만 조금이라도 오점을 덜 문히기 위하여 현실을 피해가기는 썩 쉽지 않았다.

3·4·5·6공 모두가 자기들 나름의 정당화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집권 기간 중 모두 못된 짓만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로보다는 과오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발치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좁은 소견인지도 모르지만 박정희 정권(3·4공)은 비록 경제개발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차별을 통한 지역감정의 씨를 심었고 군부집권의 전초를 열었음은 물론 3선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했고,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에 성공하고 과분하게나마 88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대외적으로 국위선양에 성공하고 대통령직 단임화의 선례를 세웠으나 상술한 광주학살을 범했으며, 노태우 정권은 남북평화문제와 북방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원칙하게 사회를 무질서화시켰다. 이들 모두는 음흉한 계책을 바탕으로 한 과오가 컸을지언정 분명히 이 나라 정치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매김하여 역사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 두세 분의 호의를 공적으로는 거절했으나 나를 알아주시고 또 진심으로 호의를 배풀어주신 데 대하여는 마음 속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사적으로는 존경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있다. 다만 내가 그때 분별없이 좋아하여 흑시라도 빛(?)을 보게 되었다면 얼마만한 공헌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또 그 생명은 얼마나 길었는지, 어찌면 지금보다 못한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4.19세력으로서의 긍지만 훼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글을 쓰는 1998년은 정치적으로 5.16 이후 36년 만에 4.19정신과 가장 가까운 민주정치의 시대이다. 지금의 김대중 정권이나 앞서의 김영삼 정권이나 민주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하나 김영삼 정권은 3·4·5·6공으로 이어진 장기간의 끈질기고 오점 많은 거대한 집권세력과의 합작품이라는 데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김대중 정권도 비슷한 성분이 약간 섞이긴 했으나 군부정권의 기득세력과 단호하게 결별한 야당 또는 개과천선한 소수 개인들이 협력 또는 합류하였다는 점에

서 질적 및 양적인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우리 속담에 ‘권력은 10년을 넘어서는 안 되고 교만은 길어도 3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權不十年, 驕不三年)’는 말도 있는데, 기득이익의 수호에 여념이 없어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거의 정기적으로 있어야 할 여·야당간 정권교체를 마치 지옥행이나 되는 양 금기시하고 또 특정 지역과 그 지역 출신을 마치 천민지역이나 천민인 양 따돌림하는 민족 반역적 망동을 일삼던 악덕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번번이 속아 마치 물고기 떼처럼 맹종부대가 되어 편견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추종자들의 반대를 힘겹게 이기고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앞서의 어느 정권보다도 4.19 정신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4.19 정신은 숭고했지만 그것은 범국민적 최대공약수로서의 총의가 숭고했던 것이지 4.19 세력 각 계파마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욕구들이 모두 다 숭고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상이 너무 높거나 과정이 너무 조급하거나 정열이 너무 강하거나 결백이 너무 지나친 욕구와 주장들이 바로 그 ‘너무’ 때문에 현실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5.16 쿠데타 세력이 침소봉대하여 당시의 혼란상을 핑계 삼지 않았던가? 4.19 그 해 말이던가, 당시 서민호(徐珉濤) 의원의 신문 기고문이 생각나는바 “연령적인 ‘신(新)’만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정치인마저 모조리 구세대로 치부하며 교체 대상으로 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요지였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느꼈었다. 그 당시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이상적인 주장들은 정치를 어느 정도 어지럽게 했지 않았나 하는 자아비판이나 자아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회갑을 전후한 4.19 세대는 성숙할 만큼 성숙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너무 ‘이상적인 최선’만 생각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최선’, 또는 ‘최선이 못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아량과 지혜를 발휘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는 현실을 너무 무시했거나 현실에서 거리가 너무 먼 변혁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더욱이 6.25사변 이후 가장 큰 재앙이라는 IMF 신탁통치하의 경제난국에 처하여 정의로운 세력들일수록 난국 해결에 힘을 모아주어야 하는 것이 4.19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대중 정권이 경제난국 해결에만 매달려 복지만 주장하면서 납득할 만한 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고의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4.19의 기본정신을 망각하려 한다면 그때는 다시 정의의 횃불로 응징해야 되리라는 것은 재론이 필요 없을 것이다.

사월혁명회보 제52호(1998.6)